

GS칼텍스, 로하스 경영대상 수상

환경재단, 지속가능성 보고서 평가 ... 하이닉스도 최우수상 받아

GS칼텍스가 환경재단이 수여하는 <2009 로하스 경영대상>을 수상했다.

환경재단(대표 최열)은 업종별로 지속가능성을 실천하는 기업을 선정해 로하스 경영상을 수여했으며 대상으로 GS칼텍스를 선정했다고 10월22일 발표했다.

또 통신·전자제조업, 서비스·금융·유통, 에너지·화학·중공업 등 3개 부문 최우수상 수상기업으로 각각 하이닉스반도체와 대구은행, 현대제철을 뽑았다.

로하스 경영대상은 국내기업들이 매년 발간하는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평가 기준으로 하고 있다.

또 장기간 환경 봉사활동을 한 곳에게 돌아가는 특별상 부문의 수상기업으로 아토피 치료·예방 캠페인을 벌여온 한국중부발전과 환경경영 관련 사무국을 따로 운영하는 롯데쇼핑 2곳을 선정했다.

최열 환경재단 대표는 “일본은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는 곳이 269사에 달하지만 한국은 50여곳에 불과하다”며 “지속가능성 보고서가 환경·사회공헌에 대한 노력을 드러내는 지표가 되는 만큼 국내기업이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10/23>